

# 해외출장복명서

| 출장자          | 소속   | 직위    | 성명  |
|--------------|--|-------|-----|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br>성평등정책확산전략실<br>국제개발협력센터  | 부연구위원 | 장은하 |
| 출장기간         | 2018. 5. 23 (수) - 2018. 5. 26 (토) [출장기간, 2박 4일]  |       |     |
| 출장지          | 중국 북경  |       |     |
| 출장목적         | 동북아시아의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지역워크숍 (Regional Workshop on Women, Peace and Security(WPS) in Northeast Asia) 참석   |       |     |
| 경비부담         | 유엔 정무국 (UN Dept. of Political Affairs)   |       |     |
| 주최기관         | 유엔 정무국/유네스코 북경사무소 등  |       |     |
| 회의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의 글로벌 및 지역 동향 소개</li> <li>○ 평화유지(Peacekeeping)와 여성평화안보(WPS) 아젠다 최신 동향 소개</li> <li>○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분쟁 예방에서의 젠더 관점 이해</li> <li>○ WPS 아젠다 달성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발표</li> </ul> |       |     |
| 국제교류<br>네트워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정무국(UN DPA), 유네스코(UNESCO) 북경사무소, 유엔여성(UN Women), 일본, 몽골, 중국 외교부 등과 여성평화안보와 관련된 현황 공유 및 향후 협력아젠다 발굴</li> </ul>  |       |     |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2018. 6. 25

출 장 복 명 자: 장은하 부연구위원

# **출 장 복 명 서**

**동북아시아의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지역  
워크숍(Regional Workshop on Women,  
Peace and Security(WPS) in Northeast Asia)  
참가를 위한 중국 북경 출장**

2018. 06. 25.



**국제개발협력센터**

# 1

## 출장개요

- 회의명: 동북아시아의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지역워크숍 (Regional Workshop on Women, Peace and Security(WPS) in Northeast Asia)
- : 2018. 5. 25.(수) – 5. 26.(토) [출장기간, 2박 4일]
- 장소: 중국 북경
- : 유엔 정무국(UN 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유네스코 북경사무소 등
- 출장자: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 역할: 한국 대표 참석 및 전문가 주제발표, 유엔 및 관련 지역국 정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출장배경 및 목적
  - 중국, 북한, 일본, 몽골 그리고 한국이 위치한 동북아시아는 영토분쟁을 포함한 정치사회적 긴장감이 존재하며 이는 현존하는 도전과제를 야기하고 국제협력을 저해함. 특히, 한반도는 지역 내 중요한 평화 및 안보이슈로 자리매김함. 이에 대해 사무총장은 담론 및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상호신뢰 형성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바 있음.
  - WPS 아젠다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UNSCR) 1325에 의거한 것으로 평화협정, 인도주의 활동계획, 평화유지활동, 분쟁 이후의 평화유지 및 거버넌스에 대한 여성 참여와 젠더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함. 이는 안보리 결의안에서 최초로 평화, 안보, 개발에 대한 여성의 안전과 기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획기적인 사건임.
  -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WPS 아젠다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세계 지역기구 중 10곳이 WPS 실행계획을 채택하였으나, 동아시아 내에서는 아직 그러한 시도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젠더관점을 포함시킴으로써 지역의 평화 및 안보의 중요성과 신뢰형성을 위한 활동들이 재차 강조될 것으로 보임.
  - 유엔 정무국(UN DPA)은 종합적 단기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의 WPS 아젠다 추진을 통한 지역담론과 의견교류를 통합하는 플랫폼을 창출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가적, 지역적 역량을 강화하여 현존하는 지역문제를 해결할 평화적 정치방안을 찾고자함. 본 프로그램은 담론, 전문성, 지식, 권한 향상과 국가 및 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하는 통합적 접근을 실시하고자 함.
  - 이에 우리 외교부 유엔과는 본원에 여성과 평화안보 (WPS) 의제와 관련한 활동과 연구,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 워크숍에 본원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국의 국가행동계획 발표를 의뢰함.
  - 본원 전문가는 동 워크숍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

국가행동계획 이행 현황을 발표하고, 여성평화안보관련 주요 국제기구와 본원의 국제협력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함.

#### □ 워크숍 세부목표

- 인식증진: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의 목적과 중요성을 (특히, 여성과 아동에게) 알리고 세부사항을 소개하며 소셜매체를 통한 인식증진을 도모. 정부, 시민단체들과 2015년도 글로벌리뷰 내용 공유
- 애드보커시 및 로비: 평화 및 안보 관련 이슈들에 대한 정책 결정에 있어 여성 참여의 중요성 강조
- 파트너십 구축: 효과적인 아젠다 달성을 위한 지역활동가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정부, 시민사회, UN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향후 지역 내 갈등해소와 평화구축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강조.

#### □ 일정:

| 일자          | 세부내용   | 장소      |
|-------------|--|---------|
| 5/23<br>(수) | ○ 출국: 장은하 센터장<br>(KE 853 인천 18:40 → 북경 20:05)<br>○ 북경 도착 (20:05 )  | 인천 ⇒ 북경 |
| 5/24<br>(목) | ○ 개회식 및 토론<br>- 의제 : 여성, 평화 그리고 안보: 글로벌 및 지역별 동향<br>- 장소 : 파크플라자 베이징 왕푸징 호텔<br>- 프로그램 : 주제 발표, 토론, 리셉션 등 | 북경      |
| 5/25<br>(금) | ○ 세션1, 2, 3 발표 및 미디어 참여 질의응답, 폐회<br>○ 장은하 센터장 한국정부 대표 주제발표<br>- 세션 3: WPS 아젠다 달성을 위한 국가실행계획:기회, 한계, 교훈   | 북경      |
| 5/26<br>(토) | ○ 인천 출국 (KE854 5/25일 북경 21:40)<br>○ 인천 도착 (00:45)  | 인천      |

## 2

### 동북아시아의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지역워크숍 (Regional Workshop on Women, Peace and Security(WPS) in Northeast Asia)

□ : 2018. 5.24(목)-25(금),

□ : 중국 북경 왕푸징 파크 프라자

□ 프로그램:

| 일 시         |                     | 구 분  |
|-------------|---------------------|--|
| 5.24<br>(목) | 14:00<br>-<br>14:30 | · 등록   |
|             | 14:30<br>-<br>15:00 | · 개회세션<br>- 사회: <b>Dr. Marielza Oliveira</b> 유엔 상주 조정관(UNESCO 북경사무소장 및 UN Resident Coordinator)<br>- 개회사 :<br><b>Ms. Mari Yamashita</b> , 유엔사무국 산하 유엔정무국(UN DPA) 아태국장<br><b>Mr. Geir O. Pedersen</b> 북경주재 노르웨이 대사  |
|             | 15:00-<br>16:30     | · 토론: 여성, 평화 그리고 안보-글로벌 및 지역별 동향<br>- 세부주제:<br>1) 1325 결의안 이후 20년 동안의 WPS 아젠다 현황 파악; 글로벌 지역사회의 성공 및 실패 사례 공유; 정부, 실무자 및 학자들의 향후 연구 분야와 기금조달이 필요한 지역 파악<br>2) WPS 아젠다 내 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에 대한 고찰 (UN 내, 외부)<br>- 좌장: <b>Cate Buchanan</b> (DPA 중재자문관 팀원)<br>- 기조연설: <b>Dr. Noeleen Heyzer</b> (전 UNESCAP 총재, 전 UNIFEM 사무총장)<br>- 패널:<br><b>Bineta Diop</b> (WPS 아프리카연맹 특사)<br><b>Patrick Cammaert (전)소장</b> (전 동부 DRC UN군 사령관/ 전 UN 사무총장 군 보좌관)<br><b>Louise Olsson</b> (오슬로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
|             | 16:30-<br>17:30     | · 질의응답 (미디어 참여)  |
|             | 17:30               | · 단체사진   |
|             | 17:30-<br>19:00     | · 리셉션  |
| 5.25<br>(금) | 9:00 -<br>10:30     | · 세션 1: 평화유지와 WPS 아젠다<br>- 세부주제:<br>1) WPS 내 평화유지의 중요성<br>2) WPS 교육의 정의와 역사 (평화활동가의 피드백 반영) - 한계와 기회<br>3) 교육 내 성 주류화와 WPS의 중요성에 대한 모범 사례<br>4) 여성 평화활동가의 참여에 대한 장점; WPS 아젠다 향상 논의<br>- 좌장: <b>Bradly Orchard</b> (UN Women 평화유지 정책전문관)<br>- 보고관: <b>Dr. Louise Olsson</b> (오슬로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br>발표자:<br><b>Bineta Diop</b> (WPS 아프리카연맹 특사)<br><b>Patrick Cammaert 소장</b> (전 동 콩고민주공화국(DRC) UN군 사령관/ 전 UN 사무총장 군 보좌관))  |

| 일 시         |  | 구 분   |
|-------------|--|---|
|             |  | Timo Smit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연구원)<br>Liu Tiewa 박사 (북경외대 국제관계학부 부교수)  |
| 10:30-11:00 |  | · 휴 식   |
| 11:00-12:30 |  | · 세션 2: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분쟁 예방에서의 젠더관점<br>- 세부주제:<br>1) 아시아 내 특정 분쟁 또는 평화 이슈들에 대한 활동; 평화활동에 대한 젠더 및 WPS 관점의 긍정적 영향 및 한계점<br>2) 종합적 WPS 아젠다에 대한 grassroots의 견해; 정부와 UN의 협력 방안<br>- 좌장: Marita Sorheim-Rensvik (노르웨이 외교부 WPS 특별대표)<br>- 보고관: Eunice Smith (UNESCO 북경 사업전문관)<br>- 발표자:<br>Meri Joyce (GPPAC 동북아시아 담당관)<br>이현숙 (한국 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 대표)<br>Akiko Horiba (사사카와 평화재단 선임담당관, UNESCO)<br>Yuriy Kryvonos (유엔 아태 평화무장해제 유엔 지역센터)<br>- 토론<br>Cate Buchanan (유엔 정무국 중재자문관)              |
| 12:30-14:00 |  | · 오 찬   |
| 14:00-15:30 |  | · 세션 3: WPS 아젠다 달성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기회,한계,교훈<br>- 세부주제:<br>1) 국가실행계획 현황 (WPS 아젠다 달성이 가능한지 파악)<br>2) one-size-fits-all 접근법에 대한 고찰<br>3) 향후 지역 별 실행계획에 대한 가능성 탐구<br>- 좌장: Julia Broussard (UN Women 중국사무소 소장)<br>- 보고관: Timo Smit (SIPRI 연구원)<br>- 발표자:<br>Ms. Alison Davidian (WPS 프로그램 전문관,방콕 UN Women지역사무소)<br>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br>Mr. Kentaro Hatakeyama (주중 일본 대사관 참사관)<br>Ms. Ulziibayar Vangansuren (몽골 외교부 다자협력국 참사관)<br>Ms. Gettie Sandoval (전 필리핀 대통령실 평화프로세스 담당 자문관) |
| 15:30-15:45 |  | · 휴 식   |
| 15:45-16:45 |  | · 미래 전략<br>- 보고관과 참가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전체회의 및 향후 계획<br>- 사회: Cate Buchanan (DPA 중재자문관 팀원)   |
| 16:45       |  | · 폐회식<br>- 폐회사<br>Mari Yamashita (UN 사무국 DPA 아태지부 소장)   |



## 개회 세션(5월 24일 목요일)

□ **개회사 1: Ms. Mari Yamashita 유엔사무국 산하 유엔정무국(UN DPA) 아태국장**  
현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WPS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여성 중재자들은 영향력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이 포함되는 것은 평화협정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글로벌 변화를 살펴보면, 1953년-1989년 사이에 유엔평화유지군 중 오직 20명만이 여성이었으나, 현재 16개의 평화활동 임무에 7682명의 여성이 활동하고 있음. 동아시아의 경우, 현재 남북 및 남북미 간 평화 회담이 열리고 있고, 남북미 삼자 간의 회담이 열리고 있고, Ulanbataar Dialogue가 열리고 있음. 여성평화안보(WPS) 아젠다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의 창문이 열려 있음.

□ **개회사 2: 게이르 페데르슨 주 중국 노르웨이 대사**

여성이 없이는 성공적 평화국축(peacekeeping)이 불가능함. 여성이 참여하면 협정이 보다 복잡해지지만 실행 가능성은 높아지며 신뢰 구축과 접근 용이성에서 좋은 결과를 담보 가능함. 필리핀과 콜롬비아 평화 협상에서 여성들이 협상의 리더로 활약함.

□ **기조연설 Noleen Heyzer (현 유엔 고위급 중재 자문단, 전 UNESCAP 사무총장 2007-2014, 전 UNIFEM 사무총장 1997-2007)**

현 유엔사무총장은 분쟁 예방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접근임.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분쟁 예방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함.

**WPS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 성이 전쟁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보리 결의안 1325가 채택 된지 18년이 지남. 1325는 예방, 참여, 보호, 구호의 4개 분야로 이루어 짐. 그러나 현재 지구상의 분쟁의 반 이상이 다시 재개 됨. 분쟁의 원인은 다차원적이므로, 평화구축과 지속가능성 구축이 같이 가야함. 분쟁에서 성적폭력과 불평등을 철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성적폭력은 전쟁의 전술로 전략함.

**여성평화안보 아젠다의 성과**와 관련하여 1990년도 이전에는 평화협정 중 17%가 여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는 72%가 여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1992-2011 협상가 중 9%가 여성임. 르완다와 동티모르의 경우 분쟁 후 선거에서 젠더 할당제를 도입함.

아시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임: 1) 국가 발전은 성공적이었지만, 국가 하위 차원(sub national)에서 지역 다양성을 억압하는 것을 담보로 그 성공을 이루었음 2)

종교, 인종, 정치적 정체성을 이용하는 정체정 정치(identity politics)가 강함. 3)젠더기반폭력(GBV)이 만연함. 로힝기야 난민의 GBV 문제도 현재 심각함. 4) 북핵 문제를 포함한 지정학적 이슈들이 산재함. 5) 동아시아 국가들은 평화유지 활동에 기여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액터(actors)를 바꾸는 게 아니라 게임의 법칙을 바꾸어야 함. 현재 충분한 프레임워크, 행동계획 등이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 젠더 챔피언을 구축하는 작업도 영향력 있을 것임.

#### □ Bineta Diop (WPS 아프리카연맹 특사)

아프리카 연맹(AU)은 5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프리카 연맹 위원회(AU Commission)가 구성되어 있음. AU내에 아프리카 평화안보를 다루는 부서가 있으나, 여성평화안보 실행에 있어서는 아직 gap이 존재함. 유엔안보리 1325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 국가도 다수 존재하며 “FemWise” 팀이 국가행동계획(NAP)을 증진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함. 아프리카의 경우 더 이상의 결의안은 필요 없음. 실행을 위해 결과 기반의 모니터링과 실행이 필요함.

#### □ Patrick Cammaert (전)소장 (전 동부 DRC UN군 사령관/ 전 UN 사무총장 군보좌관)

전략적 차원에서 여성이 평화 구축 프로세스의 운전석에 앉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함. 하지만,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운전석을 내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임.

#### □ Louise Olsson (오슬로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동아시아 지역에서 여성평화안보를 주제로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한 사회의 양성평등에 투자하는 것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북경행동강령이 채택된 지 25년이 지났고,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성별분리데이터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이 도전 과제임.

### 세션1 평화유지와 여성평화안보(WPS) 의제

#### □ Patrick Cammaert (전)소장 (전 동부 DRC UN군 사령관/ 전 UN 사무총장 군보좌관)

남성들도 성폭력의 희생자임을 기억해야 함. 1999년 르완다, 소말리아, 스레브레니차의 경우는 평화유지에 있어서의 위기 상황이었음. 평화유지군은 민간인을 보호할 수 없었음. MONUC (콩고)의 경우 2006년이나 2018년이나 아직도 성폭력의 문제가 만연함. 평화유지군인들 말고도 용역단체들의 민간고용인들이 성폭력을 많이 자행함. 당신이 만약 지휘관이라면 조기경보지표가 중요함. 즉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조짐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지역사회의 참여(community engagement)는 성공적인 평화유지를 위해 필수적임.

본인은 콩고 평화유지군(MONUC) 책임자로 2005-2006년 근무함. 부대 내에 15,000 명이 있었는데, 여군이 부족하였고, 특히 여성 장교들이 부족하였음. 남성들은 지역사회의 필요에 대한 미묘한 부분들을 이해하기에 어려움. 여군들이 많으면 지역사회에서 평화유지군의 명성이 상승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여군들은 특히 젠더기반폭력 희생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인 보호와 평화유지 임무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침. 그러나 현재에도 여성평화유지군이 부족함. 여성평화유지군 교육과정 도입 등 전 유엔여성 사무총장이자 페루 대통령이었던 Michelle Bachelete 이 많은 노력을 하였음. (참고로 현재 여성평화유지군의 순환기간의 경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1. 권력 구조와 관련된 국가 내 여성 평화유지군 선정 프로세스
- 2. 평화유지군 관련 정보가 적절하게 공유되지 않음
- 3. 여성은 가정을 위해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
- 4. UN본부에서 현장을 모름. 9명의 남자 사이에서 1명의 여자가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잘 모름. UN Military Staff College 설립을 생각해 봐야 함.
- 5. 당신의 국가의 국방부에 누가 젠더 챔피언인가? 리더십이 매우 중요함: 장군들은 젠더 자문관의 얘기를 들을 것임. 따라서 병력 파병할 때, 젠더 자문관이 같이 가는 것임 매우 중요함.

#### □ Bineta Diop (WPS 아프리카연맹 특사)

콩고는 죽음의 삼각지대로 불리우며, 많은 소녀와 소년들이 납치되고 있음. 나이지리아에서 보고하람에 의해 납치된 소녀들의 경우 “Bring Back Our Girls”라는 모토하에 구출해 왔지만, 이들 중 일부는 반군집단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놀라운 얘기를 함. 이는 생존하여 돌아온 피해자들에게 존엄한 보호를 제공하는 얼마나 중요한 지 말해 줌. 아울러, 유엔안보리 1325의 지역활동계획(Regional Action Plan)을 수립하면 국가행동계획(NAP)에도 도움이 될 것임.

평화유지군 파병 전 교육과 훈련도 매우 중요함. 파병 전 교육, 훈련매뉴얼 있지만 파병 전 보다는 현장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음. 세네갈의 경우 영국의 도움으로 파병전 훈련을 도입함.

콩고에서는 젠더기반폭력 절대 용인 금지 (zero tolerance)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젠더기반폭력은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려움. 피해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피해자(victim)을 찾기는 어려움. 또한 조사를 하게 되면 허점이 많음.

#### □ Timo Smit (SIPRI 연구원)

평화유지 활동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는 매우 중요함. 예를 들면 여성 의사들이 지역 클리닉에 가서 지역 의사들을 교육시킨다던지. 여성들이 주둔하면 지역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을 많이 경험함. 현재 SIPRI는 PKO 통계구축을 하고 있으나 여성 평화유지군만을 분리하여 수집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음.

#### □ Liu Tiewa 박사 (북경외대 국제관계학부 부교수)

중국의 평화유지활동은 다음과 같음:

- 중국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국가행동계획은 없으나 SDGs 2030 국가행동 계획은 보유하고 있음.
- 평화유지에 대한 우선 책임은 해당국가에 있음. 자국의 주권이 제일 중요함.
- UN안보리, 총회, ECOSOC의 분업이 중요하며 서로 겹치는 임무 없이 각자 기능에 충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 ECOSOC의 경우 인도적 지원, 인권위원회(HRC)의 경우 여성인권 담당 등
- 예방외교가 중요함. 중국은 현재 UN 통해서 여성평화안보 의제 증진하고 있음. 시진핑 주석은 천만불을 양성평등을 위해 유엔 여성에 쾌척함. 1995년 북경행동 강령 기념 20주년을 기념하여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여성 이슈를 옹호해 왔음.

중국은 평화유지군 교육과 훈련에 집중하여 옴. 2004년 12월 이집트, 가나, 라이베리아 등지에서 아프리카 여성을 초청하여 여성평화유지군 역량강화 워크숍을 China Women's University에서 훈련을 실시함. 2014년도에는 남수단 여군 13명을 초청하여 훈련을 실시함.

중국의 평화유지활동의 전망은 다음과 같음:

- 유엔안보리이사국, 미국, 북유럽, 그리고 지역 파트너 등 주요 강대국과의 협력
- 사회경제정치 의제와 안보 의제의 연결
- 평화유지관련 리스크 평가 중요
- 지역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 중요
- 중국은 1325 국가행동계획은 없지만, 향후에도 우리식으로(in our own way)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추진할 예정임

#### □ Bradley Orchard (UN Women 평화유지 정책전문관)의 세션 요약

1. 여성평화안보의제를 추진할 리더십이 중요

2. 책무성 중요
3. 남성과 정치적 영역을 나누는 것이 중요. (여성의 정치 참여)
4. 정치적 프로세스에 여성의 대표성과 참여가 중요
5. 형평성있는 개발 중요
6. 증거기반 연구 중요
7. 젠더기반폭력 생존자들에게 존엄한 지원 제공 중요

## 세션2

### 아태지역에서의 분쟁 예방 및 지속가능 평화 의제의 젠더적 측면

#### □ Meri Joyce (GPPAC 동북아시아 담당관)

동북아 지역에 팽배한 가부장주의와 군사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참여 확대를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함. 정부와 시민사회 간 대화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 이현숙(한국 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 대표)

한국의 여성평화안보 의제는 위안부 여성과 통일이라는 2가지 독특한 요소를 포함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 하여는, 평화협상에는 ups and down이 있기 마련이므로, 인내를 가지고 추진할 것을 권유. 1990년대 초반 이후 남북한은 일본 등의 제 3국을 포함하여 여성교류를 이어 왔으나 부침이 있었음. 현재의 남북 평화프로세스에 힘입어 향후에는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여성 간의 협력과 교류를 기대함.

#### □ Akiko Horiba (사사카와 평화재단 선임담당관, UNESCO)

Sasakawa 평화재단 대표는 사사카와 재단의 동남아에서의 여성 관련 사업의 사례를 발표함. 여성의 공식사회 진출 확대가 여성의 평화 프로세스 참여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여성 의석수 할당 제도 등 동북아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및 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 세션3

### WPS 아젠다 달성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기회,한계,교훈<sup>1)</sup>

#### □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

2014.5월 처음 발표한 우리 NAP는 WPS의제를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한계도 노정된바, 3년간의 이행 실적을 바탕으로 NAP 개선을 위한 연구를 시행하고, △부처별 특별 프로그램 지표 구성, △이행

1) 세션은 본 회의에 관한 외교부 문서 (유엔과-2762, 본원 접수 2018. 5. 29)를 참고하여 작성함

모니터링 체계 개선, △시민사회와의 협력 기반 확대 및 △대국민 인식 제고 방안 등을 보완해 나가고 있음을 발표함.

**□ Ulziibayar Vangansuren 몽골 외교부 다자협력국 참사관**

몽골은 안보 및 군사 분야에서의 여성 참여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으로 NAP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적절한 기회를 모색중이나 △여성.평화.안보 분야 전문성 확대, △대국민 인식 제고,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국제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함.

**□ Gettie Sandoval 전 필리핀 대통령실 평화프로세스 담당 자문관**

1325호 결의 이행을 위한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각 부처 예산의 5%가 자동적으로 NAP 이행에 배정되는 등 일반 부처가 NAP를 담당하는 방안에 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대통령실 내 동 이슈 지지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임. 평화.안보와 양성평등간 연계는 비교적 새로운 분야로, 정부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기존의 여성 등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함.

**□ Kentaro Hatakeyama 주중국 일본대사관 참사관**

일본은 국가행동계획이 2015년에 최초 수립되어 금년 중 개정 예정이라고 소개하면서, 일본 NAP에는 자연재해 대응 지원, 재건 등 인도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고, 일본은 대규모 자연재해를 수차례 경험하면서, 양성평등 측면을 재해 대응 및 재건 전 과정에 포함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함.



<전체참가자 사진>



<세션 3 장은하 센터장 발표>